

도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는 <살인의 문화>가 도사린 세상일 것이라고 누가 예측했다.

새로운 세기는 동서의 갈등대신 환경문제라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현세대인이 21세기의 환경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인류의 미래는 결정된다.

II-1 환경문제란

환경이란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생명체의 삶과 발달에 외부적인 영향을 주는 조건들의 총체라고 되어 있다. 생명체에 따라서 그 환경의 개념은 달라진다. 그렇게 다양한 환경이 서로 연계되어 하나의 지구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 인간의 환경이란 인간을 중심으로 한 모든 주변 여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생태환경과 문화환경 등을 들 수 있다.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인간이 사는데 필요로 하는 식품, 물, 공기를 비롯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간활동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폐기물을 정화해 주는 것이다.

이 두가지 기능은 인간활동과 지구생태계의 순환기능의 일부이다. 환경문제란 이러한 순환기능을 교란시키고 파괴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즉 지나친 인간활동으로 지구생태계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정화능력을 마비시킨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산업공해문제>와 <지구환경문제>로 구분하고 있다. 산업공해문제는 국지적인 문제 또는 특정활동에 의한 일과성인 현상으로 시정이용이하다. 그에 비해 지구환경문제는 국경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며 인류의 존속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산업공해의 경우 가해자=공해배출기업, 피해자=지역주민 등의 도식이 성립된다. 그러나 지구환경의 경우 모든 생활인이 피해자, 가해자, 관리자라는데서 우리의 삶의 양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오늘의 지구환경문제는 개개인의 생활양식과 산업계의 생산양식 그리고 지역사회의 존재양식에 의거한 지역환경문제의 누적으로 대두된 문제로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표어가 말해 주듯이 그 근원은 하나이다.

II-2 환경위기의 원인

오늘의 생태계 파괴현상은 지난 200년의 산업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모품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하는 현대인들의 소비 미덕의 생활양식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인구폭등과 도시화 그리고 빈부의 격차문제 등

이 지구환경파괴를 증폭시키고 있다.

오늘의 환경위기를 초래한 근본원인은 우리들의 자연환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

① 인간들이 모든 것을 인간중심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해왔다. 지구와 생물권이 인간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와 물체가 공존해야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동양에서보다 서구에서 더하다.

② 만물의 삶의 터전이며 외래 모든 세대의 거쳐이기도 한 생태계를 마치 인간만의 또는 현세대만의 것인양 남용하고 있다. 인간은 지구를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서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현세대의 자연자원의 남용은 미래세대의 몫을 앞당겨 쓰는 것이며 후세에게 빈곤을 안겨 주는 결과를 가져 온다.

③ 인간이 소모하고 있는 자연자원이 무한대로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60년대말 발표된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보고서는 자원고갈을 경고하고 있다. 오늘과 같이 물질우선, 경제우선이 지속되는 한 21세기 중반에 이르면 수자원, 에너지, 식량고갈과 환경오염 등에 의해 지구가 붕괴된다고 예측하고 자원은 유한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있다.

④ 현세대인이 뒤늦게 깨달은 것은 지구의 자정능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자원고갈의 위협보다 더 급한 폐수, 배기가스, 폐기물 처리문제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현대사회가 배출하고 있는 폐기물의 질과 양이 지구의 자정능력의 한계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⑤ 오늘의 지구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아직 여유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서이다. 지구환경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잘 알려진 퀴즈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연못과 연잎에 관한 것이다. 연못의 잎이 차지하는 면적은 매일 배가 된다. 연잎이 못의 전면을 덮어 버리면 연못의 생물은 질식사한다. 이 잎은 29일째가 되면 못의 면의 반을 차지한다. 여기에서의 퀴즈는 전면을 덮는데 몇일이 걸릴까요이다. 또 하나는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과 뜨거운 물에 넣었을때의 반응에 대한 것이다. 서서히 더워진 물에서는 개구리가 죽고 말지만 뜨거운 물에서는 뛰어 나오기 때문에 개구리가 산다는 뻔한 답이다. 인류는 지금 29일째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물이 미지근하다고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오늘의 지구환경이 더이상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은 누구나 분명히 하면서 해결의 합의 도출은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구환경문제만큼 총론 찬성, 각론 반대가 현격한 분야도 드물 것이다. 명분상 반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신이 그 대처에 나서는 일은 별개의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해결의 딜레마이다.

20%의 세계인구가 80%의 지구자원을 소모하고 있는데서 그리고 나머지 20%의 자원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80%의 인구는 생존을 위해 또는 자원다소비국의 생활수준을 따라잡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릴 여유가 없는데서 지구환경은 계속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나만이면 된다는 이기심으로 편리함과 풍요함을 추구한 나머지 인류는 엄청난 대가를 치루게 되었다.

II-3 해결책은 무엇인가?

지구환경문제는 단시일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인류가 직면한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처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더 기본적인 것은 인간활동의 양식을 바꾸는 것이다. 생산과 소비양식에 획기적인 변혁이 일어나야 한다.

변혁은 인간활동의 원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구환경문제가 거창하고 복잡하지만 그 해결은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그리고 개인은 개인대로 환경친화적인 정책, 생산, 소비를 각기 선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데서 비롯된다.

인간활동의 원점에서 환경을 지킨다는 것은 발생원에서 문제를 예방하는 것으로서 자연을 사랑하며 자원을 아끼고, 폐기물을 감축하고, 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고 재사용 및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을 일상화하는 것이다.

1992년도 리우에서 개최된 지구정상회의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21세기 행동강령인 <의제21-agenda 21>이 만들어졌다. 이 협약의 제4장에서는 지구환경 악화의 주원인을 지속 불가능한 형태의 생산과 소비양식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변혁을 촉구하고 있다.

1997년도 뉴욕에서 <리우+5>로 불리우는 유엔환경특별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총회는 리우에서 합의한 의제21과 다양한 국제환경협약의 그후 5년간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5년간의 새로운 다짐을 위한 국가 정상들의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하는 회의였다. (우리나라 대통령, 외무, 환경장관 참가)

이 회의에서 점검한 실천성과중에서 가장 부진했던 것으로 지적된 것이 제4장의 과제였다. 여기에서 자원다소비 국가들이 비판의 표적이었던 것은 당연하다. (한국 '92년부터 과소비 20%에 포함, GNP 7,500불부터)

뒤늦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현재 절대다수의 지방자치체가 <지방의제 21>을 수립하였는가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오늘의 국제사회의 화두인 <지속가능발전성>을 정책수립과정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은 다행이다. 지난해 9월에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출범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정부의 환경행정의 방향이 종래의 사후처리, 공급관리 원칙에서 사전예방, 수요관리 원칙으로 전환하는가 하면 산업계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청정기업으로, 소비자는 녹색소비생활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위기와 함께 IMF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도 기여한다는 것은 다행이다.